

여행자 시선 끈 다양한 테마 · 유용한 e-book · 색다른 접목

새로운 여행도서 출판 붐

글 | 허선

세계 경제시장에 대한 낙관적 관망 속에 미국관광산업협회TIAA :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미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관광객이 미국에서 지출할 예상액은 2005년 6,241억 달러이고, 2006년에는 6,52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미국 여행 출판계도 과거 단순한 관광지 가이드북에서 벗어나 다양한 테마 여행서적의 개발과 일반도서의 단점을 커버해 주는 여행 e가이드북 출간, 그리고 여행-추억-역사 등을 함께 모은 새로운 여행도서를 시도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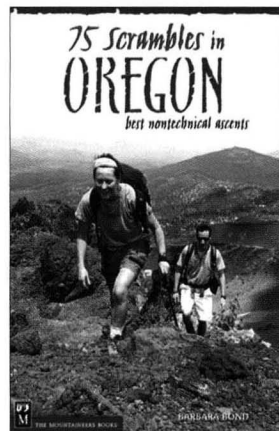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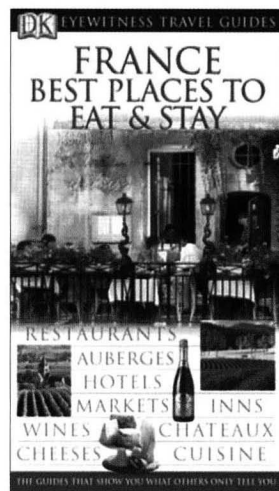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여행서 인기

과거 여행서적이라고 하면 흔히 박물관, 궁전, 성당 등 유명 관광지를 다룬 책들이 주류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음식이나 호텔이 목적이 되는 색다른 테마 여행서,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을 하려는 사람을 타깃으로 한 여행서, 특이한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여행서 등 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담은 테마 여행서적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와인을 즐기며 특별한 장소에서 머무는 것이 궁전을 보고 박물관에 가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에게 대한 반응으로 DK출판사는 프랑스에서 음식을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모은 《프랑스 France: Best Places to Eat & Stay》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테마 책은 여행서적의 트렌드로 점차 자리를 잡고 있어 프랑스에 이어 앞으로 이태리, 스페인에 대한 여행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최소 경비로 여행을 떠날 짝들이 여행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여행서에 대한 관심도 높다. 프로머스출판사는 오는 10월에 《공짜나 거의 공짜로 즐기는 뉴욕여행 NYC Free & Dirt Cheap》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은 똑같은 여행지를 새로운 방식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점차 편하게 여행하려는 것이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접근방식이 정반대라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프로머스출판사 대표 브라이스 고스넬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여행하고 싶다고 해도 누구나 좀더 싸게 여행하고 싶어한다”며 “그런 방법을 남들은 모르고 자신들만 알았으면 하는 심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자전거, 하이킹, 골프 여행은 이제 여행도서의 기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런 면에서도 좀더 새로운 것을 찾는 스포츠 여행 가이드 책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마운티어 북스는 하이킹과 락 크라이밍을 접목하여 여행할 수 있는 《오래곤에서 즐기는 75개의 울퉁불퉁 경사들 75 Scrambles in Oregon》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은 남들과 똑같이 정상에는 오르지만 조금 덜 어려운 루트를 이용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풋



프린트 출판사는 《유럽에서 즐기는 서핑 *Surfing Europe*》을 곧 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핑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익숙해져 있는 독자들이 영국, 포르투갈, 모로코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e-가이드북, e-book 여행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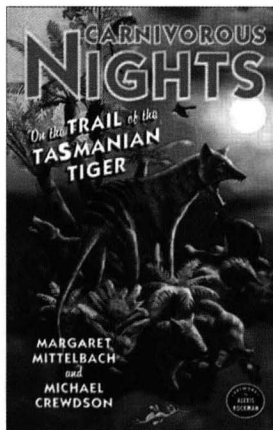
요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 임의적 정보만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는 제대로 된 정보 얻기가 쉽지 않고 시간 낭비도 많이 하게 된다. 반면, 최신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서로 출간된 여행서적은 그들이 찾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인터넷과 책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DK출판사의 e-가이드북이다. e-가이드북은 온라인에서 여행지 정보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독자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여행 목적지만을 다루는 웹사이트를 뒷받침해 최신 정보는 물론 온라인에서 정보 찾는 시간까지 줄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러프가이드 출판사도 인터넷에 정통한 여행자들을 위해 e-book을 출간하고 있다. 이 출판사의 시리즈물 《디렉션스 *Directions*》는 맥, PDA로 볼 수 있는데 웹과 링크되어 있어 호텔 정보, 톱 레스토랑의 메뉴, 지도, 미술관 닫는 시간 등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장르를 접목시킨 새로운 여행도서

요즘 많은 출판사들이 여행과 추억, 여행과 역사, 여행과 그 무엇 등 여러 주제를 혼합한 책들을 출간하고 있다. 빌라드 출판사는 4월에 《육식동물의 밤 *Carnivorous Nights : On the Trail of the Tasmanian Tiger*》

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의 내용은 타스마니아 섬으로 탐험을 떠난 3명의 젊은 자연주의자들이 멸종됐다고 믿었던 괴상한 동물을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동물애호가, 일반적인 여행추억거리에 식상한 독자들, 환경주의자, 자연과학이나 역사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오버룩 출판사의 《8:55 바그다드 *The 8:55 to Baghdad : From London to Iraq on the Trail of Agatha Christie and the Orient Express*》는 영국의 여류 추리작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작품을 쓸 때 영감



을 얻었다는 세계 각지를 따라 여행하면서 그녀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독특한 여행서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살인사건》을 현대식으로 맞춰 여행서적으로 재현했다고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미국의 전쟁터 *America's Battlegrounds: Walk in the Foot steps of America's Bravest*》는 미국 각지에 있는 40여 개의 기념적인 장소와 전쟁터를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뉴스를 함께 여행정보로 담고 있어 미국의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여행서적은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던 시대를 벗어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로 독자들의 여행패턴까지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항상 새로운 소재개발과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층을 형성하는 미국 출판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다. 우리 출판계도 독자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살펴서 다양한 테마와 소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단지 책 판매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